

건설정책리뷰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 연구

박선구_ 경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 (parksungu@ricon.re.kr)
홍성진_ 산업혁신연구실 책임연구원 (hongsj@ricon.re.kr)



우리 연구원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전자증권제도 적용대상 여부를 살펴보고, 도입 실익 등을 검토하고자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 연구’ 리뷰를 발간하였다.

우리나라는 실물증권 발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실물증권에 수반하는 비효율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여 왔으나,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보증기관으로 조합원인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출자증권 발행과 보관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중장기적으로 전자증권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자증권법 및 관련 규정 검토결과, 현행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전자증권법 상 전자등록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전자증권법 적용을 위해 전자증권법상 법률 개정(금융위원회 고시「전자등록업 규정」) 및 정관 변경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자증권 활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를 부록에 수록하였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전자증권화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 모두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데 비해, 전자증권법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의 검사와 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전자증권화는 전략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체계 개편, 보증시장 개방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신중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